



05

담당자 : 김남영, 064-754-5722, rat1121@korea.kr

제주마의 털색 분포 및 월라(얼루기) 털색 특징 구명

배경

말의 털색은 12종의 대분류와 40여종의 세분류로 말의 외모를 구분하였다. 제주마의 경우 대분류 9종의 전통방식으로 조사되어 보다 과학적인 분류법으로 제주마의 털색 특징을 구명하였다.

성과 제주마 털색의 유전적 다양성 구명

말의 얼룩기 털색은 털색 유전학적으로 3종류(Tobiano, Overo, Sabino)로 분류된다. 얼룩기 관련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 제주마 월라(얼룩기)는 Tobiano 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제주마는 다양한 털색을 갖고 있어 씨암말과 씨수말 사이에서 태어난 자마가 부모의 털색과 다른 색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혼동을 주는 경우가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교배 조합 별로 생산되는 자마의 털색 비율을 제시하였다.

- 제주마 털색 분포 : 총마 60.2%, 유마 16.5%, 적다 10.8%, 월라 10.9%
- 총마(회색)×총마(회색) 교배시 자마의 털색 출현율 : 총마(78.9%), 유마(13.7%), 적다(6.8%), 기타(0.6%)

활용 제주마의 털색 특징 구명으로 털색 다양성 확보

털색 관련 유전자 분석법으로 제주마 등록시 씨수마에 대한 털색 유전자를 확인하여 교배에 이용함으로써 제주마의 다양한 털색 확보와 유지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또한 고객들이 선호하는 특이한 털색(월라) 승용마 생산·육성으로 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된다.



제주마 월라 털색의 다양한 백반 형태

제주마 털색 전통 분류(대분류) 및 뜻풀이

- 가라마 : 몸 전체 털색이 온통 검은 말
- 총마 : 회색 털이 몸 전체에 퍼져 있는 말(청총마는 갈기와 사지가 검으며 온 몸은 흰 말)
- 적다마 : 갈기, 꼬리, 네 다리가 검지 않고, 몸 전체 털색이 밤색이거나 불그스름한 말
- 월라마 : 원래의 털색에 네 다리가 희고, 몸에 흰 띠나 백반이 혼재한 얼룩기 말
- 유마 : 원래의 털색에 갈기, 꼬리 및 네 다리가 검은 말
- 고라마 : 등에 검은 털이 일직선으로 있는 누런 말
- 공골마 : 황색이며 입과 네다리는 흰색인 누런 말
- 백마 : 털빛이 흰 말(총마가 나이가 들면 흰색으로 된 말은 백총)
- 부루 : 원래의 털색(밤색, 갈색, 회색)에 흰 털이 균일하게 있는 말
- 자흠 : 엉덩이 쪽에 흰 반점이 어린아이 손바닥 크기로 여러 곳에 있는 말
- 흠 : 적색이나 밤색인 말로 입과 눈 주위가 흰색
- 범마 : 호랑이 무늬가 있는 말(아주 드물다)